

자유율법이 반대생활이요 반대생활이 자유율법

여러분들 자신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느리고 다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곧 하나님입니다.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대로 마귀가 자신이 스스로 다니는 것처럼 사람에게 그와 같이 느끼게 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게끔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다니고 늘 살려주고 늘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곧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괴롭음 주고 자꾸 병나게 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행복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심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태초의 하나님이있었기에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왔기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과 마귀가 병존하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살아 있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전부 멸망 당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모든 사람들 속에 분신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마귀가 계속해서 괴롭음 주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지쳐서 병들어서 죽게끔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적마다 하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조창생이 죽을 적마다 인간 속에 있던 하나님이 죽는 것으로 하

님이 6,000년간 계속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속의 하나님의 생명을 거머쥐고 있어

그 사무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긴 자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긴자가 하나님의 숙원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기는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을 죽지 않게 만들려고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전부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들은 돌구렁이 마귀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생명을 거머쥐고 있기에 마귀를 죽이면 사람까지 죽는고로 마귀를 당장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애타게 애원하는 것이 반대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반대생활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머쥐 수 없는 방법입니다. 반대생활을 철두철미하게 되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머쥐고 있던 마귀가 생명과 분리되어 일단 몸 밖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때를 놓칠세라 이긴자 하나님의 분신이 뛰쳐나온 마귀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강해져

이 사람이 옛날에 일본 갔을 때에 일본 식구들 눈 안찰을 해주었습니다. 눈 안찰을 할 때 눈애다가 손을 대니까 그대로 죽 썩어서 기절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의 가슴을 내리쳐서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대로 이 사람 속에 이긴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옛날 은혜와 다릅니다. 옛날 영모님 때 은혜와는 다릅니다.

이 은혜는 마귀 죽이는 은혜이기에 손을 대면 그대로 죄인 속에 마귀가 죽는고로 마귀 혼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죽기 때문에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안찰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안찰하면 안찰 받는 사람마다 까무러치니까 안찰받



구세주 조희성님

는 사람마다 전부 죽 썩 뺏어서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바라만 봐도 마귀가 죽습니다. 마귀가 가루도 존재도 남지 아니하고 박살납니다.

그런데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만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구세주의 입장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을 살려왔지, 사람을 죽여온 게 아닙니다. 마귀 원수가 밟히고 마귀를 죽이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보가 고약한 마귀는 구세주의 감로이슬성신의 빛을 쬐자마자 죽게 되는데 사람 속의 생명을 꺼안고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반대생활 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마귀가 튀어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유율법이 반대생활이요, 반대생활이 자유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고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겨라. 여러분들이 마음상태가 그와 같이 되어버리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설 땅이 없어집니다. 마귀가 설 땅이 없으니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오면 가차 없이 박살시켜버립니다.

마귀 죽이는 건 구세주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쥘니다. 나라는 것이 생각하면 죄가 되고 나라는 것이 생각하면 마귀가 발동한다가 되므로 마귀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해진 마귀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물에 빠져서 죽게도 하고 차에 깔려서 죽게도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도 하고 집이 무너져서 죽게도 하고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죽게도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이 마귀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마귀가 활동을 못하게 하고 마귀를 약하게 하려면 나를 짓이기고 나라는 의식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움직이면 마귀가 설 땅이 없는고로 마귀는 결국은 사람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긴자가

마귀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가 뭐 한 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꼭 차 있습니다. 지금! 구세주의 분신이 이 우주에 꼭 차 있기에 마귀가 고개만 내밀었다 하면 박살나서 죽습니다. 고개를 내민 마귀의 모가지는 여지 없이 성령의 검에 의해 땅강 잘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숨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이적행위죠? 이적행위라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간첩과 같은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마귀를 숨겨주는 입장이 된다면 이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일 수 있도록 구세주를 도와주려면 여러분들이 반대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도 마귀가 몸속에서 튀어나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면 마귀가 여러분들 몸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살 곳이 없으니까 고개를 들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대로 그 순간 이긴자의 분신이 죽여 버립니다. 마귀가 수도 없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마귀는 새끼를 낳고 그렸죠? 아무리 새끼를 많이 낳고 구세주의 분신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전멸시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식구들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앞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후보자들이죠? 물론 마귀를 죽일 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걸릴 게 없지만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는 걸 사람이 알겠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사람들까지 전부 희생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자 구세주의 사명은 이 세상 대부분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

이 사람은 완성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지, 부분적으로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대부분 다 구원하려는 것이 완성자 구세주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리제단 식구들은 마귀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세주를 돕는 일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일도 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마귀가 최고로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에게 희생제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고집부리지 마세요. 제단에 율법이 있으니까 이 제단의 율법대로 사세요. 나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제단의 율법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세요. 항상 구세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입이 터졌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뱉으면 그 말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쭈시건 말건, 옆을 보지 말고 남을 보지 마세요. 이 길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지, 옆이나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구세주가 없는 여러분들도 구원이 없고, 하나님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가 이 역사를 기어이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들이 전부 석방되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안 되면 그것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세요.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되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세주 예배 말씀집 6권 303-309페이지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0) 가나인을 정탐하다

(지난호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겁을 집어먹은 두 눈을 하고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아주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아주 몸집이 크고 힘이 장사 같은 야국의 자손도 보았습니다.”

“또 남쪽에는 전에 우리와 전쟁을 치른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고, 산에는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사기가 떨어져 술렁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외쳤습니다. 갈렙도 역시 가나안을 탐지하고 온 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곧 출발하여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올라가서 공격하면 틀림없

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가나안으로 정탐하러 갔다가 온 다른 사람들이 소리지르며 질렀습니다.

“여보게, 갈렙! 제 정신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도저히 그 사람들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공격하면 이긴다고? 어렵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온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다닌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살지 못할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보지 못했는가? 우리가 본 그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 야국의 자손들은 네페림의 후손이요 마치 거인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몸집과 우리 몸집을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정도로 형편 없이 작은 몸집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고 밤이 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물러가서 원망했습니다.

“모세여, 당신은 어떻게 하려는 거요? 애굽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사막 길에서

《6장 40년의 광야생활》

(10) 가나안을 정탐하다

죽었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어찌자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 놓고는 전쟁으로 죽이실 셈인가? 우리가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은 또 낫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것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겠소”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새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좋겠다! 그것 좋겠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공론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마구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우리가 돌아보고 온 땅은 아주 아름답고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쟁과 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짓은 절대로 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 자신을 지켜 주는 신이 없으니,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며 지켜 주십니다.”

“저 사람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저 사람은 모세의 편이다. 잡아 죽여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 주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돌더라도 나 여호와와 외면하고 그 병으로 다 죽어가고 싶지 아니하리라. 다만



군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성막 위에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을 하

너만을 살리고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들 머리 위에 머물고, 낮에는 구름의 기둥으로 밤에는 불의 기둥으로 되어 우리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힘이 없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 버렸다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죽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에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